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29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고속도로 재생과	담 당 자	• 일반화정책팀장 김민규 ☎440-4181 • 담당자 박상용 ☎440-41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오전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 인천 · 경기,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합심

- 30일,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추진위한 협약 체결 ... 3자 협의체 구성 -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상부도로 녹지 · 공원 등 조성 방안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30일(금)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체결에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 ~ 2025)’에 포함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3개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남청라IC ~ 서인천IC ~ 신월IC 간 19.3km의 구간 중 약 14.0km 구간을 4~6차로로 지하화하는 사

업이다. 총 사업비 약 2조 856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의 큰 목적 중 하나는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상부공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토부,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는 것도 협약내용에 명시한다.

* (안산~인천) 시흥시~인천시, 연장 19.8km, 4차로 신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
(계양~강화) 인천시 계양구~강화읍, 연장 31.5km, 4차로 신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중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 시간이 약 17분(40분→23분) 단축돼 인천시와 경기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약 2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

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3자간 협의체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교통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조감도

참고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